

1982年의 建築界

● 姜明求 / 중앙대 명예교수
 ● 金熙春 / 서울대 명예교수
 ● 張起仁 / 삼성건축 대표
 ● 崔昌奎 / 신진건축 대표

(가나다順)

“分水嶺으로 기록돼야 할 해”

姜明求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정신적으로 새출발해야

지난 한해도 옛것과 새로운 것이 엇갈린채 많은 일들이 그치지 않고 지나간 해였다.

건축계도 그간의 침체 속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극복키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고, 그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올해는 올림픽유치와 독립기념관건립 계획 등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자부심과 희망을 준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들은 기술적인 면에서 보다 정신적인 면에서 이제야 말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보며 우리들이 나아가길 새로운 건축의 이념과 목표를 재정리하는 계기가 될 건축계의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현대건축은 양적인 면에서도 급속한 경제 성장과 발달칭 많은 발전을 했으나 한 측면에서 보면 피상적인 발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겠다.

얼마 안되는 주목을 끌만한 건축을 제외하고는 정작 창조적인 한국의 새로운 현대건축이 시작된 것도 바로 82년부터 점차 일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것은 건축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전반에 걸친 한국의 知的안정과 향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근세기인 85년 전에 건립된 독립문이나 68년 전에 준공된 한국은행본점, 52년 전에 세워진 현 신세계백화점, 45년 전 화신백화점이나 불과 16년 전의 조흥은행본점 등을 보는 우리들의 눈은 무척이나 오래된 역사적 유물로 착각될 때도 있다. 이는 얼마 되지않은 세월의 흐름이었으나 현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불과 10여년 동안 그 얼마나 우리나라의 새로운 건축이 눈부시게 발전되었는지, 너무나 짧은 시일 안에 이루어진 것과의 비교에서 오는 현상일 것이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에게 무의미한 일은 버리고 새것을 찾는 자기반성의 시간이 소리없이 닥아온다. 이러한 自省의 눈으로 우리나라 근대건축계를 볼 때, 해방까지는 외국의 건축문화를 모방하기에 바빴던 일본의 서양식 건축양식이 그대로 침투되어 재판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정치적 불안으로 그러한 건축마저 敵産으로 유지에만 급급하던 담보상태였고, 그나마 6·25로 파괴되고 말았다. 따라서 모든 건축자재생산도 중단되었고 건축이래야 겨우 미군수물자에 의존한 보수공사 정도였다.

□ 세계를 리드하는 자세필요

그러다가 60년도부터는 부족하고 미숙한 국산 건축자재도 일부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부족한 자재 등은 수입에 의존하여 우리나라도 현대건축에 눈을 뜨면서 외국의 현대건축문화가 정식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대건축양식과 공법, 자재 등을 미처 소화도 되기 전에 목마른듯 받아들이기에만 바빴던 그 시절에 새로운 건축이나 그밖에 다른 것도 새롭기만 하면 일단 외국것을 모방한 것이라는 선입견이 생길만큼 건축도 급진적으로 변화

해서 외관상으로는 국제화된 발전양상을 보였다.

그러다가 7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과 외국이라는 한정된 지역성을 벗어나 세계화라는 국제적 감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점차적으로 외국것의 모방이라는 선입견도 차츰 없어지게 되었다.

□ 88년 대비한 건축계 정진기대

80년대에 들어 한국인들의 이러한 국제감각은 세계인의 공통된 감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외국의 현대건축이 시대에 따라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건축도 현대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계인 공유의 건축양식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하나의 세계적인 유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 속에는 창조와 모방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그 시대를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무턱대고 유행을 가법게 볼 수만도 없으며 반대로 범통만을 고수하는 것도 대국적인 관점에서 국제화된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여긴다.

앞으로 바라기는 그동안 단시일 안에 이룩한 발전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세계를 리드하는 우리의 건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며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믿는다.

이제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이 기회가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만방에 과시할 절호의 찬스로 알고 이를 위해 보다 빼어난 작품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건축계의 정진이 있기를 바라며 이런 뜻에서 지난 10월에 건축 3단체가 공동주선해서 열렸던 제1회 대한민국 건축대전은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

“內的成熟이 아쉬웠던 해”

金 熙 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세기 말에 접어든 현재, 변천하고 있는 建築思潮의 경향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모든 文化가 正(正)·反(反)·合(合)의 과정을 거쳐 발전하는 것이라고 볼 때 建築文化의 발전도 어떤 사실이 있으면 이것에 반발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이것들이 서로 統合 融和되어 다음의 새로운 사실로 이어져 가면서 전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建築이란 인간의 모든 定住活動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實體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지역의 自然 및 人文의 제반 時代背景이 종합되고 응결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建築의 本質에 관하여 建築史家 기디온(S. Giedion)은 <한 時代의 성격은 建築에 가장 반영된다>고 하였다.

하여튼 近代建築의 발전은 通念적으로 산업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두게되며, 이 무렵 宗教改革과 新大陸의 발견과 함께 西歐는 본격적인 근대화의 旅程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商圏과 工業地帶를 중심으로 급격한 都市化가 야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建築의 영역에도 몇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낳게 되었다.

그 변화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대

別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새로운 産業社會的 요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建築像을 모색하고자 하는 방향이며, 이에 대하여 다른 한가지는 反産業主義의이고 復古的인 과도기적사실(Transient Facts)로서 나타난 건축의 여러가지 경향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多樣한 이즘(ism)과 建築運動(Movement)의 亂立時代라고 요약할 수 있다.

□ 現代建築思潮의 흐름

그러나 결국 기디온이 일컫는 바 構成的事實(Constituent Facts)로서의 前者의 경향은 20세기 建築理念의 모태로 이어지고, 後者의 경향은 前者에 대한 反作用的 역할밖에 다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脫近代主義의인현대건축의경향으로서 1960년대의 아키텍그램 메타볼리즘(Archigram Metabolism) GEAM 등의 전위적인 건축가 그룹이 모색하는 경험적 건축과 7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은 하나의 뚜렷한 理念을 갖는 이즘이라기 보다는 무언가 과거와 달라져야 하겠다는 現代建築의 原點을 향한 歐美 新進建築 世代들의 다양한 이념일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벤츄리(R. Venturii)의 著書가 비로소 그 理論의 근거를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20세기 후반은 통일된 建築理念으로 집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도의 개인주의·감상주의 그리고 神奇性的 표방 등, 저마다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難解한 건축적 표현과 그럴싸한 설명들은, 商業主義的인 경쟁이 극심한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노력의 결과로서 한

때 유행하였다가 없어지는 뿌리없는 理念일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의 建築은 미국 사회에서 환영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몇개의 건축이 미국 건축가의 설계에 의해 건설 중에 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온 意志 중의 하나는 近代建築에서 상실되었던 것, 즉 建築 및 都市의 제반, 환경과 그것이 속한 시대와 지역 그리고 그속에 담기어지는 현실의 인간이, 그 환경과 맺는 심리적·기능적·상징적인 연쇄관계에 관하여 인간성을 부여코자 하는 노력일 것이다. 또한 그것은 人間歡迎을 의도적으로 定住環境속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반성이기도 한 것이다.

이를테면 都市設計의 분야에 있어서도 과거 巨匠들의 都市理念, 그리고 전후 영국 등의 新都市開發에서 결과된 개발우선주의의 非人間的인 都市像을 반성하고, 새로운 개발보다는 오히려 기존도시의 歷史性과 人本性的의 회생에 관심을 주고자 하는 경향으로 생각되며 미국의 케빈 린치(Kevin Lynch)를 중심으로 하는 學派의 연구태도는 이러한 모색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 시대적요청 인식필요

韓國建築은 그 전통성이 계승될 충분한 培養液을 섭취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內的成熟이 성취될 겨를도 없이 항상 外的인 移植만이 몰아닥쳐 어떻게 그것에 적응할 것인가에 급급할 뿐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다가올 時代의 요청을 인식하고 확장된 意味의 建築을 다룰 수 있는 建築士가 배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올 한해를 마무리 짓는다. <*>

키우고 또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다짐을 해보는 것이다.

□ 熱과 誠을 다한 한해

建築界도 活性化를 위해, 당국을 비롯하여 무언가 이루어 보고자 誠과 熱을 다하는데에 우리 모두가 힘썼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루어진 것도 없고 所望스러운 실마리가 잡히지 아니한 듯하다. 그러나 거대한 과업들이

“많은 일들로 점철된 한해”

張 起 仁
삼성건축

82년도 저물어 새해가 멀지 않았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이 無心하다고나 할까, 보탬이 없는 나날을 지내온 듯하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 동안 수많은 큰일들이 우리 앞에 던져졌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經濟不況 속에서 그래도 잘살아 보겠다는 의지와 기대를 걸었다. 그리하여 좌절할 수가 없어 이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의 꿈을

우리에게 던져진 것만은 사실이다.

아시아게임과 세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었다. 장하다 아니할 수 없다. 또 서울의 한강이 아름다운 자연을 곁들여 훌륭하게 꾸며진다고 한다. 이 또한 패재를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꼼꼼히 생각해 보면 어렵기 그지없는 일들이다. 올림픽을 위한 설비도 갖춰져야 하겠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운집하여도 지장이 없을 交通路와 광장, 그리고 휴게장소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어야 할지 문제이기만 하다.

한강을 살리는 것도 理想的인 사업이라 생각하지만, 강변에 접근하기조차 힘들게 고속화 아닌 고속도로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해서 강변에 내가 설 자리는 어디며 유유히 거닐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고 살펴보기도 한다. 때문에 옛 江山과 같이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과제인 것이다.

□ 협회발전 두드러져

대한건축사협회는 날로 커다란 발전을 보이고 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내일을 다지면서 무한한 가능성과 기대를 걸어 본다. 그것은 우리의 주변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或者는 이를 좋지않게 여기는 일도 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예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에게 이루어 놓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해석되기도 한다. 왜냐 하면 先人들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아 버렸다면 우리들은 할 일을 잃고 말기 때문이다.

선진외국의 학생들은 힘들여 공부해야만 先人이 이룩해 놓은 것을 따를 수 있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무척이나 힘든 고통이 따른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무엇이든 하면 된다 고나 할까? 역시 어려우면서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되새겨 본다.

그동안 具琬會회장님은 임직인과 더불어 협회발전을 위해 무진 애썼고, 그 공 또한 커 이 기회에 찬사를 드린다. 일부에서는 회원들의 비위와 그에 따른 벌칙이 심하다는 역정을 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협회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회원 각자가 自重과 信實을 다하여 대처해 나간다면 협회의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번 총회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화기에애한 가운데서 진행되어 具琬會회장에게 滿期退任이라는 영광을 주었고, 建築業務에 성실하고 지부운영에 골몰하시던 분이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薦舉選任된 것은 우리 회원 모두가 慶賀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서울支部長의 選任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보람차게 진행되었다고 여겨진다.

서울지부의 복지회장님도 오랜 동안

게 회고해보고 새로 맞이할 83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보면 82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건축계는 지난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 침체와 모색과 관망의 해

첫째로는 침체된 경제여건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침체와 모색, 관망의 해라고 간추릴 수 있다. 이런 가운데서 정부의 진정한 민주화여로의 의지로서 지방자치를 전제로 한 행정구역의 변동이라든가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도시의 승격 등에 따른 새로운 행정건물 청사(廳舍)가 도처에서 신축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신축건물의 설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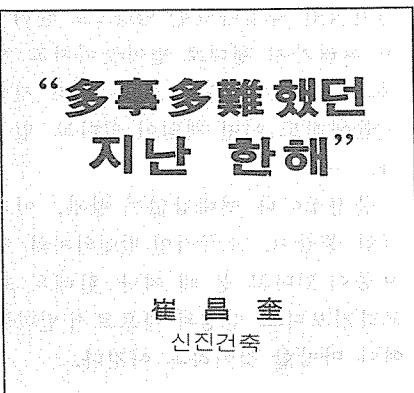
서울 회원의 복지를 위하여 심혈을 쏟아 주었고 또 많은 혜택을 우리 회원들에게 안겨 주었다. 그러면서도 後日을 위하여 복지에 더욱 힘쓰시겠다는 마음은 든든한 바 다시 賀頌하는 바이다. 각 지부총회도 원활히 끝났다고 들었다. 모든 지부회원들에게 慶賀를 드리며 더욱 發心하여 영광된 길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빈다.

성황리에 마친 건축전시회와 성실하게 이어져 오는 會誌의 발간 또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의 記錄을 위하여, 그리고 後進들의 지도를 위하여 전시회와 회지에 보다 많은 참여를 기대하여 본다.

□ 참된 삶을 위한 礎石돼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보다 좋은 내일을 위하여 刻苦精勵하여 先驅하는 예지와 창조하는 슬기, 그리고 겨레를 돕는 용기와 尚德의 기풍을 가꾸는 일이다.

세계적인 建設技術의 발전은 미처 따라가기에도 힘들만큼 多種多樣하고 멈출줄을 모른다. 이에 대처하는 능력은 뜻이 있고 몸이 가는 곳에서 갖추어 지리라 믿으며 회원 여러분의 정진에 기대를 거는 바 크다. 이러한 점을 自覺하고 꾸준히 노력할 때 보다 좋은 공간·환경·건축은 조성되리라 믿으며, 우리들의 능력과 용기가 세상을 일깨워 참된 삶의 터전 위의 礎石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서 이해의 마지막을 장식해 본다. (*)



우리는 한해의 말미에서 우리의 생활이나 사회의 상황들을 돌아보고 지난일을 반성, 닦아올 일들을 새로운 자세로 맞아들여 각자의 생업에 임하게 된다.

지난 82년의 우리 건축계를 곁히하

있어서 어떤 곳은 일반공개현상설계나 혹은 지난 81년도에 유행했던 소수의 저명 사무소에 대한 지명현상설계, 또는 지명설계 등으로 거의 종결되었다.

이런 일들은 작품심사에도 거의 한정된 인사들로서 심사위가 구성되었다는 점이고 한결같이 권위주의의 상징인양 대개가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전례대로). 이러한 설계경기의 실패는 우리들이 오랜 시간을 갖고 노력해 왔듯이 구태의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건축 3단체가 합의한 “한국건축현상설계 경기운영위원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건축작품심사가 반드시 학술적이거나 이론적인 것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

각하는 사회나 또는 우리 건축인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발주처의 독주·독선은 없었는가 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다.

□ 아쉬웠던 몇가지 일들

민주사회에서 특히 공공건물이 특정한에게만 기회가 부여된다든가 권위가 자연스럽게 강행된다든지, 선의의 경쟁문호가 좁아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83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일반 공개설계경기가 상식화되고 심사위원 구성에도 재야건축가가 참가해야만 하겠고 특히 국가적이거나 그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 건축가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적하다. 또 응모요령도 엄정공평이 생명인 경기인 만큼 경기운영위의 규정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수작품이 응모되고 그중에서 선택한다면 과거와 같이 불미스런 일들이 없어질 것으로 믿는다.

다음은 건축관계 법규의 잦은 개정 에 관한 것으로 이는 비단 82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과정이 걸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변동이 있었다. 한 예로서 일괄주주방식(턴키 베이스)과 관련된 특별법으로 그동안 점차적으로 건설업계 자체 내에서 기피하는 본질적인 모순이 파생돼 차츰 흐지부지해지고 있다. 좀더 확고부동한 법규제정이 건축계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올림픽 / 독립기념관과 건축계

두 번째로는 88올림픽이 물고온 충격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올림픽을 위한 시설은 기존시설도 많지만 앞으로 건립할 시설도 많이 있다.

월여 전에 현상공모로 일단락이 된 조직위원회 건물 외에도 선수촌·기자촌·프레스센터 등등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건립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조직위원회 건물 현상공모에서 심사위(전문위)가 뽑은 작품을 조직위(비전문가)에서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결국 당선작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전문가가 선정한 작품이 어떤 이유이든 인정안되는 형편이라면 과연 이러한 현상공모는 사실상 필요없는 것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앞으로도

있을 현상공모에도 적지않은 우려가 예상된다.

올림픽이 단순히 스포츠의 경연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문화가 한자리에서 더불어 평가를 받게기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며, 특히 그 장소가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더욱 건축이 갖는 의의는 색다르다.

세째로 몇해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복부인·콘슨 등 유행어가 올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것은 하나의 오점이 아닐 수 없다.

건설업이 궁극적으로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겠으나 국민경제에 준 악영향은 너무 컸다. 그 이유는 81년부터 계속된 불경기가 82년에도 여전했다는 간접적인 영향도 그것이고, 그로 인해 건축계도 그 여파가 미쳐 설계사무소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감원이나 기구축소가 불가피했으며 심지어는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네째로는 해방·후 40여년 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독립기념관건립이 일본교과서 왜곡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따라 기념관의 위치·규모·건축양식 등에 관한 일반의 여론이 비등한데 비해 가장 관계가 깊은 건축계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의견표시가 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이다. 마땅히 전문가적 입장에서 종합된 의견이 정립되어 제시되어야 함이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앞서 말한 올림픽조직위의 처사나 또는 지금까지 국가적인 대규모 건조물에 대한 처사들의 전례를 보아 발언할 의욕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선정, 규모, 양식의 결정이나 기본계획이 전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는 풍토가 안타까운 일이다.

건축문화가 건축가와 무관한 사항이라는 뜻이 되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계는 회의적인 태도로 관망하고만 있는 형편에 있는 것 같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일도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 1회 대

한민국 건축대전이 그것이다.

이전까지 관에 의해 국전의 한부분으로 열렸으나 그것이 금년부터 민간단체에서 열리게 되어 그간의 불협화음을 일소에 부치고 새출발을 하게 되어 큰 다행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아직도 보조금문제 등으로 완전한 자립을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출품작품이 그전(20점 정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그만큼 민간단체로 넘어온 것을 큰 다행으로, 건축계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실 늦은 감은 있으나 건축계의 한속원이 풀린 셈이다. 큰 잔치를 치룬 현재 마무리할 몇가지문제가 듣는 이로 하여금 아쉬움을 갖게 하지만 완전한 민전의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섯째, 우리나라 건축계의 국제화는 필연적이며 이미 많은 활약을 하게 되었다. 건축가들의 국제회의 참석이나 해외여행의 기회가 차츰 늘어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적극참여할 여지 마련필요

특히 근자에는 공산국가에서 개최되는 건축관계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괄목할 일임에 틀림없다. 이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치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그만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차후 더욱 분발해야 할 일이다. 당국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 지난 한해 동안 건축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모든 일들이 사회 전반적인 복잡다난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우리 건축인들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불성실이나 연대감없는 방관, 이기적인 불참여, 소극적인 발언의지의 결여등이 있다고 볼 때 지난 한해의 회고라기보다는 반성의 자료로서 받아들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여긴다.

□ 83년에 바라는 몇가지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를 맹성하면서 새로 올 1983년에 어떤 기대나 희망 같은 것이 없을 수 없다. 건축계 전체의 소망이 아닐지라도 필자개인으로도 몇가지 새해의 희망과 기대를 걸어본

다면, 첫째 건축분야의 일관성있는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해 장관급의 건축청 창설을 바란다.

건축이 하나의 전문분야면서도 전문가보다도 비전문인의 견해가 우선한다든지 각종 건축에 관계되는 고시, 면허, 허가에 이르기까지 크게는 국토개발이나 기획, 국가적인 대규모행사의 기본계획에 전문분야로서의 참여가 가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어 이의 실현을 위해서도 건축청의 창설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국무성과 A·I·A와의 횡적인 관계나 호주의 N·C·D·C의 조직이나 직책을 살펴보아도 우리의 현실에 꼭 필요한 기구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우리 건축인들이 먼저 자

각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지만 공공건물이나 시설의 공개설계경기의 법제화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작가의 저작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한 이유가 된다. 특히 이 문제에는 제재가 반드시 있다. 즉 공평무사한 심사규정이다. 현행 건축 3단체 설계경기운영위원회의 제반규정을 우선 인정하고 서서히 개선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U·I·A의 국제설계규정에 까지 이른다는 목표가 선약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국제사회생활에 적응해서 공존하는 일이 될 것이고 많은 우수작품들이 응모될줄 믿는다. 외국에 비해 우리의 경우 응모작수가 너무 적었던 것은 모두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건축이란 그 사회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은 건축이 생성되는 풍토와 분위기를 중시하는 말이라고 할 때 우리 사회 상황이 민주화되면 민주적인 건축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불건전하면 결국은 사이비나 추한 건물밖에 생겨나지 않는다고 보며, 우리는 지난해를 회고해서 반성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건축계의 풍토정화에서부터 힘쓰고 나아가 법규나 기구의 재정비는 물론 전체 건축인들의 연대감을 가진 성실한 발언과 참여가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발언, 질문, 제안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또 한해가 저물어가는구나 생각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

회원 (준회원) 가입 안내



건축사법 제33조 제 2 항 및 당 협회 정관 제 7조 제 2 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하지 아니한 분으로서 본 협회 준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접수기간 : 1983. 1. 4부터
2. 자격기준 : 건축사면허소지자 (종전 2급 포함)
3. 접수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각시도 지부
4. 제출서류
가. 입회원서 1매 (당회 소정양식)
나. 준회원 카드 2매 (당회 소정양식)
다. 반명함판사진 2매와 증명사진 2매
5.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당 협회 총무부나 각지부 총무과로 직접 문의바랍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89
(전화 723-9491~2)